

2018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경상북도 경주시
- 나아지역아동센터



2018. 7

이번 이화봉사단은 저를 더더욱 봉사의 늪에 빠져들게한 활동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는 물론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기획봉사'를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1년 반동안 해외봉사, 단시간 지역 아동센터에서의 성교육 봉사 등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해 오면서 이번 국내 교육 봉사는 저에게는 새로운 기획봉사 분야 로써의 도전이었습니다. 우연히 이화봉사단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어 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이를 준비했던 지난 학기의 과정은 결코 후회되지 않습니다.

우선 더운 여름에도 매주 마다 나와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계획서를 쓰고, 피드백을 하며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한 팀원들 덕분에 이번 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화봉사단 기획단 활동으로 살짝 지쳐있었던 저에게 팀원들의 열정과 준비성은 하나의 윤희유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다시 두발로 뛰어다니며 움직이고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첫 날 나이지리아동센터에 도착하였을 때는 지금껏 고생하면서 만든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걱정이 태산처럼 쌓였을 정도로 아이들과의 돌발 상황이 너무 많았습니다. 서열을 중요시하는 아이들, 게임 규칙을 계속 바꾸려고 하는 아이들, 힘으로 다른 아이들을 제압하려는 아이 등등 생각지 못했던 유형의 아이들을 마주했을 때는 봉사단원들 모두가 당황하여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 느꼈던 감정은 모두가 충격과 공포 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팀원들 모두가 힘에 빠져 숙소로 돌아와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 밤샘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덕분이었는지 그 다음날 부터는 아이들 유형에 맞게 지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더더욱 아이들이 저희를 낯설게 받아들여 하지 않고 친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마다 초롱초롱 해져가는 아이들의 눈빛, 점점 스스로 발표를 해보려고 하거나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느꼈던 뿌듯함과 고마움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4박5일의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느꼈었는데, 정말 눈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있었고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어 아이들과 번호 교환을 하면서 '선생님 가지마세요, 여기서 60년 같이 살아요!' 하는 아이들의 소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봉사를 준비하면서 지쳐있었음을 느꼈던 과거 제 자신에 대해 너무 후회스러웠고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되어주고 싶었고 정말 서울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항상 봉사단원들의 편안을 위해서 매일매일 힘써 주셨던 센터장님과 모든 센터 관계자 분들, 서울에서 언니들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너무너무 좋아해 주고 우리를 잘 따라 일을 많이 도와줬던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지수, 만들기 활동, 그리기 활동을 참 좋아했던 민지, 나은이, 케이크를 먹으면서 '저는 헤원쌤이랑 케이크를 만들어서 오늘 하루가 너무 행복했어요' 라고 말해준 민정이, 쉬는시간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모르는 건 질문한 순환이, 수업시간마다 유튜브 이름을 대며 장난을 쳤지만 항상 호기심 있게 바라봐준 서우 등등 4박5일 동안 빈틈 없이 꽉 차 있는 이름들이다. 아직도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예쁜 나이지리아동센터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사회봉사팀, 센터장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방문해 아이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서툰 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직접 마주하는 일은 되도록 피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한지 3년째인 올해, 지난 시간동안 제가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저의 인간적 성숙도를 시험하고 싶은 마음에 이화봉사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무색하게 처음에는 아동센터도 그 지역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선호를 이유로 선택하였고, 프로그램 역시 제 개인의 경험을 떠올리며 좋아했던 과목 위주로 구상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계속 제 위주의 생각을 거쳐 봉사를 준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봉사를 마치고 난 뒤 기억나는 것들은 우리 단원들과 의기투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던 순간과 아동센터의 아이들과 웃고 떠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바닷바람을 쐬며 아동센터로 향하던 길과 매 활동을 사진에 담으며 지켜보았던 아이들의 눈빛, 또 일과 후 단원끼리 모여 치열하게 고민하던 기억들은 오랜 시간동안 생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들이라는 점을 마음깊이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한번을 빌어 제 인간적 성숙도를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봉사를 통해 관계에 서툴렀던 과거를 딛고 계속 나아가기 위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위주로 꺼냈던 많은 구상이, 깎고 다듬는 과정을 통해 전달되었을 때, 아이들이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나 즐거워하는 모습이 제게는 가슴 벅참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지나온 시간에 대한 위안이 되면서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만들 날들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제게 이런 좋은 기회를 준 나아지역센터의 아이들과 여러 센터 선생님들, 우리 단원들 그리고 이화봉사단을 기획한 사회봉사팀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단지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신청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이화봉사단 활동은 기존의 교육 봉사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동센터 봉사의 경우 교육적인 측면보다 아이들과의 소통, 공감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 처음 보는 아이들이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신적인 교감이 오가야 하고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하지만, 수업 시간이나 그 이외에도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그들에 대해 알아가려고 노력하다보니 아이들도 차차 우리에게 다가와 주었다.

이화봉사단을 통해 이때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짧은 기간의 봉사지만 오랜 기간의 준비가 필요했고 그 어느 때보다 정신적으로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에 따라 내가 이 아이에게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했던 시간인 것 같다.

소통을 위해 노력했기에 마지막 날의 아쉬움은 더 컸던 것 같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의 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고 소통과 공감의 힘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센터 내에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센터장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 많이 신경써주셨고 이 덕분에 우리가 준비해간 프로그램들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이 분들을 통해 단지 형식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과 정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처음 센터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낯설어하고 경계하던 눈이 잊히지 않는다. 함께 포토카드를 만드는 활동을 할 때에도 이름조차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했던 아이들이 마지막 날에는 "선생님, 가지마세요. 저랑 여기서 평생 같이 살아요."라고 이야기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5일간 내가 그 아이들에게 해준 것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활동하는 것을 도와준 것이 전부였는데 언제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연 것인지 고마울 따름이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고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다. 각각이 기획을 해오고 괜찮은 부분을 고르고 수정하며 매주 회의를 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그렇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한 점이 너무나 미안하다.

봉사를 가기 전까진 4박 5일이 굉장히 긴 시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하루하루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다. 오히려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느꼈다. 준비해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바빠서 아이들과 많이 이야기하고 놀지 못한 것도 너무 아쉽고 준비해갔지만 하지 못한 프로그램도 있어서 그것 또한 너무 아쉽다. 또한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한다.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마음이 든다. 좀 더 긴 시간이었다면 아이들과 더욱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이화봉사단이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소중한 우리 봉사단원들도 만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사랑스러운 나아지역의 아이들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또한 정말 친절하시고 우리 봉사단원을 아껴주시던 센터장님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주상절리에 가는 등 좋은 경험도 많이 할 수 있었고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이전에 봉사를 했을 때에도 보람차긴 했지만 이화봉사단 활동만큼 내가 많이 배우고 성장한 봉사도 없을 것 같다. 기존에 했던 봉사와는 달리 봉사를 기획하는 것부터 진행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기회이고 경험이었다. 또한 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아이들의 생각도 알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아이들이 주는 사랑도 받을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다.

허*정

우리 팀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힘들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하나라도 더 좋은 쪽으로 의견을 내는 팀원들을 보며 다들 대단하다고 느끼며, 나도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생각한 프로그램을 막상 진행해보니 부족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만 눈에 들어와서 속상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다들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보완책을 찾아가며 더 나은 방향으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교과목으로는 온전히 배울 수 없는 아이들과의 소통 방법, 관계 맺는 방법, 우리에 집중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어서 더 기억에 남고 인상 깊은 봉사 활동이었다. 분명히 서툰 점이 존재했기 때문에 비슷한 기회가 생긴다면 좀 더 발전한 내가 되어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

며칠간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재미있게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했다. 아이들이 생각만큼 열렬한 반응을 보이지 않던 때도 있었고,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는데' 싶을 정도로 열광적이었던 때도 있었다.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그 중 단연 으뜸은 아이들이 얼마나 감정에 민감하고,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다채로운 나이인지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서 아이들을 다루는 데 특별한 요령이 생겼거나 아이들과 생활하며 생기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적절한 응답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아니다. 센터의 아이들과 당장 내일 다시 만난다고 해도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헤맬 것 같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동안 정말로 가르친 것 이상으로 많이 배웠으며, 진부한 말이긴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머리보다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느껴본 적 없는 감정에 공감하는 것,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동시에 옆에서 말을 걸어오는 다른 아이에게도 경청의 리액션을 하는 것, 그리고 이별의 준비가 되지 않아 우는 아이를 달래며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면서도 울지 않을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 배웠다. 센터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몰랐을지도 모르는 경주의 푸른 자갈 해변과 그것보다 더 푸르른 아이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